



은혜와真理교회 조용목목사

“누가복음 5장 33절~6장 11절 강해 설교”

구역예배

- 성경: 누가복음 5장 33절~6장 11절 강해 설교
- 찬송: 찬송가 102장(새찬송가 94장)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6장 11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자신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지만 합니까’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매년의 대속죄일에는 금식하였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된 후로는 금식일이 네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결혼 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올 텐데, 그 날들에는 금식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혼인 풍습에는 신혼여행을 가지 않고 집에 머물러 한 주간 동안 손님을 위해 집을 개방하고 왕과 왕후처럼 옷을 입고 대우를 받으며 친한 친구들과 기쁨을 나눕니다. 신랑의 친구들은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한 주간 동안은 금식일이 되어도 금식하지 않습니다. 금식할 때는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짐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결혼 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라는 말씀은 누구나 수긍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은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올 텐데, 그 날 들에는 금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잔치의 칠일이 지나면 누군가 신랑을 빼앗아 가는 사건이 더러 발생한다면 몰

라도 그런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차원이 다른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데는 부득이 비유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할 때 “천국은 마치”(마 13장, 20장, 22장, 25장)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상의 사물을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신랑으로 비유한 기록이 여러 곳에 (사 54:5,6 렘 2:2)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비유했습니다.(요 3:29) 예수님은 열 처녀 비유에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 25:10) 사도 바울은 신자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비유했습니다.(고후 11:2, 엡 5:25-27)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을 혼인 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마 22:2-9)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계 19:9)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결혼 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올 텐데, 그 날들에는 금식할 것이다.”라는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결혼 잔치의 손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활동과 말씀은 모두 구속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란 예수님이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 날들에는 제자들이 슬퍼하고 금식하게 될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허례허식이나 자기과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한 억지 금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식을 하면 교만이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교만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교회생활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부정적인 관점에서 살피고 판단하므로 불만과 불평을 하는 것이 일상화됩니다. 자신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니 못마땅하고 불합리하게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고 경건한 신자는 항상 자신의 부족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합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와 애통하는 마음, 애타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금식하게 됩니다. 탐심과 자아를 깨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 위한 금식이어야 합니다. 경건한 봉사와 헌신을 하기 위한 금식이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금식으로 인하여 자신의 성품과 신앙에 긍정적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36절에서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신앙생활에서 본질과 내용이 배제된 전통이나 관

습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해로운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의 신앙생활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집착하여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예수께서 두 가지 비유로 예리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낡은 옷을 수리하려고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잘라내어 헌 옷을 기우면 두 옷을 다 못쓰게 만듭니다. 세탁 시에 물을 흡수한 새 옷 조각이 많이 수축되어 헌 옷이 망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부대에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오래 사용된 가죽부대는 딱딱하게 되어 탄력과 신축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낡은 가죽 부대는 그 속에 담은 새 포도주가 발효됨으로 생겨 난 가스로 인해 터지므로 가죽 부대는 망가지게 되고 포도주는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헌 옷과 새로운 천, 낡은 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 비유처럼 옛 것과 새 것을 혼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거나, 안식일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비성경적인 신학사조나 종교다원주의를 혼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아량과 포용력을 더한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고 깨달았으면 장로들의 유전과 율법 학자들이 만든 규율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접합시키고 조화시키려고 하는 미련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인 것을 깨닫게 되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성경의 율법과 계명을 인본주의와 이기주의로 왜곡되게 해석한 것을 가지고 복음과 절충하려고 시도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6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주요 곡물은 밀과 보리입니다. 이 두 곡물은 파종 시기가 가을 이른 비가 내린 후인 10월, 11월로 비슷하지만, 추수 시기는 보리가 4월경으로 밀보다 약 4주 정도 빠릅니다. 율법에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종이나 추수는 금지되었습니다.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소량의 이삭을 직접 손으로 따 먹는 행위는 절도 행위에 해당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에 해

당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보고 제자들과 나아가서 예수님을 책잡을 좋은 기회로 여겼습니다. 이삭을 자르는 것은 추수 행위이고, 손으로 이삭을 비빈 것은 타작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라고 정죄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일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자기와 밧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였습니다. 그 당시 사울왕이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도피 중에 허기져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성막으로 가서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전’은 이동식 장막으로 되어 있는 성막을 가리킵니다.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소에는 항상 진설병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진설병의 원어를 직역하면 ‘얼굴의 딱면전에 놓인 떡’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열한 떡입니다. 밀가루를 반죽하여 구운 떡을 성소 안에 비치된 상위에 두는 것인데 12지파를 상징한 12개를 두 줄로 진열하였습니다. 제사장은 매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교체해야 했습니다. 교체되어 나온 진설병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피신하던 중에 허기져서 부득이 이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다윗은 기름부음 받은 자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대로 다윗을 찾아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억울하게 사울 왕의 추적을 받아 쫓기는 위급한 상태에서 허기를 면하려고 행한 일입니다. 어쨌든 그 행위가 정죄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예를 들면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허기져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은 것이 어찌 정죄될 일이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것인데 율법학자들은 안식일 계명에 39가지의 세부조항을 덧붙여 사람들을 정죄하고 괴롭게 하는 법이 되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였습니다.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실체이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빙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되니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

안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일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안식일에는 생명이 위태로운 위급환자 외에 치료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만일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면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고 책잡을 것이고, 만일 고쳐주지 아니하시면 사랑과 자비를 가르치시면서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고 책잡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간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손이 마른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섰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목숨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옳으냐?”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 오른손 마른 사람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니” 즉시 그의 손이 정상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치유된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치려는 주님의 의지입니다.

그는 고침 받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틈에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하라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의무이며 또한 특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므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손 마른 사람의 순종입니다.

손 마른 사람은 ‘만약’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손을 내밀었다가 낫지 않으면 망신을 당할 것인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 수 없으니 이려고 있는데 흡사 내가 일부러 이려고 있는 것 같이 여기시는 것은 아닐까? 예수께서 나를 앞으로 불러내시고 머리 위에 안수하시거나 손을 어루만져 낫게 하신 후에 “네 손을 내밀라.” 하셔야 순서가 합당한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 마른 사람은 의심이나 변명 따위란 내버리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니” 순식간에 주님의 능력이 그의 손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손이 짝 펴졌습니다.

11절에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나타내신 능력을 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의도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러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분노로 가득 차서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서로 의논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고 강박하면 복 받고 은혜 받을 계기를 도리어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는 동기로 삼게 됩니다.

구역성경에서 예를 찾아보면 애굽 왕 바로가 그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기를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라고 말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 애굽 온 지경을 칠 것”이라고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비소했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모든 하수가 피가 되는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강박한 바로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다시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개구리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바로는 기겁을 하고 모세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거두어져서 바로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니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고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애굽은 열 가지 재앙으로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온 하수가 피가 되는 재앙이 임하였을 때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으니 굴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했으면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점점 마음이 강박하게 되어 열 가지 재앙으로 온 애굽이 축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나병환자,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을 향하여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네 손을 내밀라.”라는 말씀으로 즉시에 완치되게 하신 것을 바리새인들이 목도했으니 완전히 변화를 받게 될 계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들은 마음이 더 강박하게 되어 예수님을 해칠 방도를 의논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시는 말씀을 보고 들을수록 마음이 강박하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됩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으니”라는 말씀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되기를 “그러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공홀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박케 하시느니라”(롬 9:18) 하였습니다. 그가 강박하게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말씀을 들을수록 마음을 고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총괄하는 결론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려면 본질과 비본질, 알맹이와 껍데기를 정확히 분별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신앙의 본질과 알맹이는 배제하고 비본질인 껍데기를 붙들고 있는 허망한 신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는 금식, 애타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기 위하여, 탐심과 자아를 깨뜨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 위하여, 경건한 봉사와 헌신을 하기 위하여 금식하는 것이 금식의 본질입니다.

② 하나님이 옛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창조와 안식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안식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눅 6:5) 하였습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어떤 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안식일이 아닌 주의 날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주일은 안식일을 대체한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대속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안식일의 역할은 마감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모든 일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경영하십시오. 그리하여 본질과 실속이 있는 신앙생활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